

HEADLINE NEWS

‘외국인 사업가 및 근로자가 살기 좋은 도시’ 평가결과: 멜버른·빈·밴쿠버 1위, 서울 61위 (런던)

경제전문지 ‘The Economist’의 비즈니스정보 수집 부서인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는 ‘건강과 안전’, ‘문화와 환경’, ‘인프라시설’의 3개 항목 12개 변수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 130개 주요도시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사업가와 근로자들이 ‘살기 힘든 정도’를 평가해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호주의 멜버른, 캐나다 밴쿠버, 오스트리아 빈은 좋은 기후, 양호한 주택, 낮은 범죄율, 다양한 문화와 레크리에이션 자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외국인 사업가 및 근로자가 살기 좋은 도시’ 공동 1위에 올랐다.

서울은 중위권인 61위로 상하이 73위, 베이징 77위 보다 앞섰지만 동경 21위, 싱가포르 50위, 타이베이 60위에는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도시로는 하와이 호놀룰루 21위, 보스턴 28위, 뉴욕이 52위로 평가되었다. 파푸아뉴기니의 수도 포트모르즈비는 130위를 차지해 가장 살기 힘든 도시로 나타났다. 조사와 평가는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EIU의 ‘세계 도시의 생활비 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고, 2002년 10월 처음 발표되어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다.

(www.cnn.com/2002/WORLD/europe/10/04/world.cities/fulllist) (store.eiu.com/index.asp?layout=pr_story&press_id=1230000723&ref=pr_list)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노년층 인구를 위한 도심 재활성화 추진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시/랭커스터시)
- 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할인매장 규모 제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오�클랜드시)

도시환경

- ③ 하수처리시 발생하는 소각재를 개량토(改良土)로 재생하는 사업 실시 (요코하마)
- ④ 주거·상업지역의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규제조례 시행 (시애틀)
- ⑤ 녹지 보존 위한 용지 취득 목적으로 구민채 발행 (동경)

도시교통

- ⑥ 시영 지하철 전체 좌석을 ‘우선석(優先席)’으로 시행 (요코하마)
- ⑦ 택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첨단택시 도입 (칼라룸푸르)
- ⑧ 이용률이 낮은 환승주차장 개발계획 추진 (볼티모어)
- ⑨ 주행중인 차량 단속을 위해 원격으로 차량을 멈추게 하는 리모콘장치 도입 검토 (런던)

사회복지·문화

- ⑩ 고령자·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한 건물정비조례 제정 동경
- ⑪ 예술문화분야의 청소년 창작활동 지원센터 개관 (오사카)

행재정

- ⑫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적재산활용추진계획」 시행 (오사카)
- ⑬ 시민 만족도 높이기 위해 市조직 개편 단행 (요코하마)

① 노년층 인구를 위한 도심 재활성화 추진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시 /랭커스터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랭커스터(Lancaster)시와 팜데일(Palmdale)시는 쇠퇴해가는 도심의 재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노년층을 위한 주택공급에 나섰다. 랭커스터시는 도심에 116호 규모의 노인가파트를 현재 건설중이고, 별도로 3개의 노인가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팜데일시에서는 300호 규모의 노인가파트 건설이 도심 재활성화 사업계획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는 이유는 미국 전역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인구 구성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이들 두 도시는 20년 뒤 노년층 인구가 현재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교외지역보다 잘 갖추어진 도심의 보행환경·문화시설·병원·기타 서비스 시설, 관리하기 편리한 도심의 주택 등이 노년층의 도심 거주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www.latimes.com/news/local/la-me-elderly2feb02,1,5778705.story?coll=la-home-local)

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할인매장 규모 제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오클랜드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도시와 카운티들은 최근 월마트(Wal-Mart)와 같은 대형 할인매장의 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토지이용조례를 채택하고 있다. 오클랜드시, 로스앤젤레스시 등은 대형할인매장의 규모를 100,000Square Feet 이하로 규정하는 조례를 곧 통과시킬 예정이다. 미국 전역에 영업중인 월마트의 크기가 보통 180,000~230,000Square Feet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엄격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형할인매장의 입지가 인근에 있는 소규모 상가들과 쇼핑몰의 몰락을 가져와 도시의 활력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www.cp-dr.com/binn/main.taf)

③ 하수처리시 발생하는 소각재를 개량토(改良土)로 재생하는 사업 실시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市 츠루미구(鶴見區)의 '북부 제2하수처리장'에서는 최근 민간의 자금과 노하우를 공공 서비스에 활용하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방식을 통해 하수처리시에 발생하는 소각재를 하수도공사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개량토 재생사업을 시작했다. 하수도 사업에서의 PFI 방식 도입은 일본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재이용할 수 없는 소각재를 매립 처분해 왔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면 소각재의 재이용률이 100%가 될 예정이다.

市는 PFI 방식 도입을 통해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플랜트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재처리로 완성된 소각재를 플랜트 운영회사에 매각하여 안정된 수입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市가 그동안 연간 약 1억1천만엔 정도 부담해온 개량토 관리비용이 향후 10년간 약 2억4천만엔 정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www.yomiuri.co.jp/e-japan/kanagawa/news004.htm) (요미우리신문, 2004. 1. 16)

④ 주거·상업지역의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규제 조례 시행 (시애틀)

미국 시애틀市는 주거 및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유무에 따른 분리배출제도를 지난 10년간 시행해 왔으나, 재활용률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판지, 유리 및 플라스틱 병, 알루미늄 및 주석 캔 등을 일반폐기물과 함께 버리는 것으로 추정되자, 이에 대응하여 市는 최근 새로운 재활용 규제조례를 승인했다.

2005년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혼합용도 건물에서 배출되는 특정 재활용 품목은 반드시 폐기물 수집함 및 매립용 차량에 적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6년부터는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市는 이 규제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재활용 교육과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www.ci.seattle.wa.us/news/detail.asp?ID=3981&Dept=28)

도시 환경/도시 교통

■ 세계도시동향 ■

5] 녹지 보존 위한 용지 취득 목적으로 ‘구민채’ 발행 (동경)

최근 일본 東京都 세타가야區는 구민을 대상으로 개인용 채권을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발행 총액은 5억엔이며, 만기는 5년이다. 이번에 모집되는 자금은 경사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용지 취득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1회 세타가야 구민채’는 구민에 한해 구입이 가능하며, 종류는 1만엔, 10만엔, 100만엔의 3종류로 3월 25일에 발행한다. 만기 전이라도 환매할 수 있으며, 이율은 국채 발행 이율 등을 참고하여 결정할 방침이다. 용지취득 대상지는 코쿠분지애선(國分寺崖線)의 타치카와(立川)市에서 세타가야區에 이르는 약 25km의 경사지 중에서 區 내의 약 15km이며, 이번 ‘구민채’는 녹지 4,300㎡의 일부를 취득하는 데 활용된다. 경사지 주변 재개발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區는 경사지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mytown.asahi.com/tokyo/news02.asp?kiji=2774) (아사히신문, 2004. 1. 21)

6] 시영 지하철 전체 좌석을 ‘우선석(優先席)’으로 시행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市 시영(市營) 지하철에 따르면, 지하철 내 우선석(優先席)에 대해 이용자들이 “우선석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도록 지하철 구내 방송에서 더 홍보해 달라”, “우선석 자체를 폐지하고, 모두 우선석으로 하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우선석은 우리나라 지하철의 ‘노약자석’과 같은 좌석이다.

시영 지하철은 이러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우선석의 기능을 검토한 결과, ‘사람에 대한 배려와 상냥함’이라는 서비스의 관점에서 누구나 서로 자리를 양보하는 지하철 내 환경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003년 12월부터 모든 좌석을 우선석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용자에게 친절한 시영 지하철’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www.city.yokohama.jp/me/koutuu/info/oshirase/kisha/20031031_01.html)

7 택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첨단택시 도입 (칼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칼라룸푸르(Kuala Lumpur)시는 택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첨단 장치를 구비한 택시를 도입할 예정이다. 「Smart Taxipreneur」라는 이 프로젝트는 1년간 2개 택시업체 100여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이 첨단택시에는 GPS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이를 운영센터와 연결하면 효율적인 차량 관리 및 예약 서비스가 가능하다.

우선, 교통상황 정보의 신속한 수집이 가능하므로 갑작스런 교통상황 변화에도 대처가 가능하여 승객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공차율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를 택시 내에 설치하여 승객이 필요로 하는 행사 일정표, 관광지, 상업 광고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승객은 이동중인 택시 내에서도 호텔 예약, 입장권 구매 등이 가능하다. 시는 이러한 첨단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택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첨단택시 도입을 통해 요금 인상 없이 택시 수입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택시에 이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star-techcentral.com/tech/story.asp?file=/2004/1/21/technology/7150356&sec=technology)

8 이용률이 낮은 환승주차장 개발계획 추진 (볼티모어)

미국 메릴랜드州的 볼티모어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Maryland Area Rail Commuter' 환승전철역 중 이용률이 낮은 환승주차장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이 현재 추진중이다. 이 계획은 최근 10년간 대중교통 이용률이 감소됨에 따라 환승주차장 이용률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다. 교통당국은 이번 사업을 통한 개발수입으로 세수를 증대시키고, 역사 주변에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을 끌어들이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한편, 일부 시민은 이 계획이 주차시설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고, 일부 환승주차장에서 열렸던 대규모 행사 개최를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www.smartgrowth.org/news/article.asp?art=3791&state=21)

도시교통/사회복지·문화

■ 세계도시동향 ■

9] 주행중인 차량 단속을 위해 원격으로 차량을 멈추게 하는 리모콘장치 도입 검토 (런던)

영국 경찰은 안전운전을 위해 시행중인 단속 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설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외에, 주행중인 차량을 강제로 세울 수 있도록 리모콘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다. 영국 경찰서장협회는 단속을 위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버튼 하나로 차를 멈추게 하는 리모콘 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격으로 차량을 멈추게 하는 이 장치가 도입 되면 안전성이 증진되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A모터링 트러스트사(社)는 운전을 방해할 수 있는 이 아이디어를 운전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를 도입하려면 천천히 단계를 밟아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the Observer, 2003. 12. 21)

4]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건물정비조례 제정 (동경)

東京都는 최근 「고령자·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건물정비조례」를 제정·공포했다. 2003년에 都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약 210만명으로 17.1%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2년 장애인 수첩 발급건수는 약 43만건으로, 1989년에 비해 1.5배나 증가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에서는 그동안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들을 정비해왔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법에서 정한 고령자·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고려해야 하는 건물에 사회복지시설(학교, 공동주택, 보육소 등), 운동시설, 식당 등을 추가했고, 대상 건물의 규모를 하향조정하는 등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둘째, 고령자·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정비기준은 대상 건물을 신축·증축·개축·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셋째, 건물 정비기준으로 계단, 욕실, 화장실, 주차장, 이동경로(통로, 경사로, 승강기 등) 등의 폭과 단차 해소, 구배(勾配) 조정 등 보행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www.toshikei.metro.tokyo.jp/new_baria/jourei/index.html)

사회복지·문화/행·재정

■ 세계도시동향 ■

④ 예술문화분야의 청소년 창작활동 지원센터 개관 (오사카)

일본 오사카市에서는 새로운 청소년 전용 문화시설을 표방하는 ‘청소년문화창조 스테이션(KOKO PLAZA)’이 최근 개관했다. 이 센터는 청소년에게 음악, 춤, 미술 등 다양한 예술분야의 창작, 발표의 장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자발성, 창조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센터는 라이브공연 등의 촬영, 편집, 가공 및 영상작품의 제작이 가능한 ‘MTV편집실’, 미술작품 등을 제작할 수 있는 ‘미술공방’, 다양한 활동의 연습과 발표가 가능한 ‘연습발표실’, CD와 데모테이프 제작이 가능한 ‘음악스튜디오’ 등 다채로운 시설을 통해 예술문화분야에서의 청소년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초보단계에서 전문단계까지 음악, 춤, 미술 등을 배울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청소년이 다양한 예술문화를 접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KOKO PLAZA’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www.city.osaka.jp/media/shisei/2004_2/month/index.htm)

④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적재산활용추진계획」 시행 (오사카)

현재 일본 오사카市는 지적재산의 활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오사카市 지적재산활용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시내의 중소·벤처기업에 의한 지적재산의 창조·활용을 활발하게 하여 기업활동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이 가진 미(未)이용특허를 중소·벤처기업에 이전시켜서 활용(특허유통)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계획은 자사기술이 가진 가치와 특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특허마인드 향상전략’, 중소기업이 가진 아이디어의 권리화·사업화를 지원하는 ‘특허창조·활용지원전략’, 기업이 특허유통에 참가하여 사업화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지적재산권 유통촉진전략’ 등 3개의 전략을 기초로 한다.

(www.city.osaka.jp/media/shisei/2004_2/month/index.htm)

시민 만족도 높이기 위해 市조직 개편 단행 (요코하마)

최근 일본 요코하마市는 2006년까지 진행하는 조직 개편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市는 시민문화예술국, 청소년어린이가정국, 수·환경국, 병원경영국, 복지위생국, 마찌즈꾸리계획국, 도시정비국(모두 가칭) 등 7개의 局을 신설하고, 현재의 25 국실을 23국실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대폭적인 조직 개편은 약 30년만이며, 이는 중앙부처 조직 개편과 같이 부처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市는 발표했다. 또한 시립보육원 운영이나 공원 관리 등의 권한은 자치구에 이양할 방침이다.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2005년에 문화예술도시창조사업본부를 신설하여 2006년까지 해당 본부와 시민국을 「시민문화예술국」으로, 청소년과 육아대책을 일원화하여 2006년까지 「청소년어린이가정국」으로, 하수도국과 녹정국(綠政局)을 개편하여 「수·환경국」으로, 시민병원과 뇌혈관의료센터의 2개 시립병원을 「병원경영국」으로 독립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복지국과 위생국을 통합해 「복지위생국」으로, 도시계획국과 건축국은 업무를 고려하여 도시계획, 개발 지도 등을 담당하는 「마찌즈꾸리계획국」과 재개발, 구획정리 등의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도시정비국」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mytown.asahi.com/kanagawa/news02.asp?kiji=5015) (아사히신문, 2004. 1. 22)